

'한국인의 본향' 완성이 향상에 한 발짝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발전 비전 수립
현장행정 일상화 소통 적극 나서
국가예산 최다액 확보 등 큰 성과

민선 6기 고창군은 을 한해도 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과 누구나 쉽게 찾아오고 와서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한국인의 본향'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강한 의지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통해 비전을 만들어왔으며 현장행정의 일상화로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이를 통한 군민 화합의 기반 위에 국가예산 최다액 확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예산 최다액 확보... 각종 공모사업 등 성과 특목

을 한해 고창군의 단연 눈에 띄는 성적은 바로 국가예산 확보다. 고창군이 확보한 2018년도 국가예산은 1328억이다. 이는 2017년 국가예산보다 43%인 401억여원을 더 확보한 성과다. 신규사업은 94%나 증가한 39건에 170억원(총사업비 2181억)과 계속사업 또한 11% 증가한 69건에 729억원(총사업비 4613억) 등을 확보했다.

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국가예산사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다.

한 발 앞선 전략으로 박 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공직자들은 예산발굴부터 부처편성, 국회 예산심의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예산 35억(총 394억)을 확보했으며,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4개소 73억(총 361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개소 88억(총 483억)을 비롯해 고창읍을 관통하는 중심 하천인 고창천의 침수 위험을 해소하는 '고창지구 도시 침수예방사업' 4억(총 618억)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고창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공브랜드 대상'과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등 친환경도시구축과 각종 농특산물 브랜드의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아 을 한해에만 43개 부문에서 수상성과를 올렸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도 41건 336억여원이 선정되어 탄탄한 군정발전 기반을 구축했다.

▲군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공약사업 88% 이행 순조

민선 6기 고창군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생활복지 실현 △문화관광 기반구축 △명품 농어촌 건설의 3대 목표를 내세워 6개 분야 23개 사업, 32개 세부사업을 분류해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88%의 이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마을별 고유산업 발굴 육성, 오지마을 버스노선 확대·증편, 마을숙원사업 등은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정한 공직문화'를 위해 투명한 행정처리와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등 모든 부서와 공

직자가 함께 힘써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05점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달성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82개 군부 중 4위를 기록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을 보다 확고하게 실현했다.

▲뛰어난 자연생태환경 기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고창군을 한마디로 지칭한다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청정한 자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잘 보존하면서도 청정하고 감각 넘치는 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의 DMZ로 불리는 운곡습지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 받은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선운산, 병바위 등 6개소가 도내 최초 국가 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기능을 총괄하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가공품을 생물권보전지역로도 활용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 구축

고창군이 또한 가장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는 재난재해분야이다. 군민들의 생활터전이 쾌적하면서 안전할 수 있게 고창읍 중앙로 일대의 전선을 지중화하고 군청 앞 오거리에 화재교차로를 설치했으며 주요 도로에 도로확·포장 등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도시거점망 구축에도 힘써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민이라면 누구든지 화재, 폭발,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스포츠 교통상해사고 등 7종에 대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집 군민 대상 안전보험'과 예기치 못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 사업 등은 군민들의 일상 안에서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면서 재난재해에 선제적 예방과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를 더욱 확고하게 마련해 가고 있다.

▲군민이 미소 짓는 복지 감동도시 실현

이와 함께 고창군은 골고루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는 명품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노인복지 분야에 481억을 투입해 기초연금과 일자리, 경로당 운영 지원, 무료예방접종 80세 이상 확대 시행, 무료 순회진료 등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기회와 소득을 보장했다.

또한 지역 장애인들이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 확대,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와 분산산후인과 개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 부담을 덜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구늘리기에도 힘썼다.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생산과 6차 산업화

농축어민이 활짝 웃는 탄탄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생산환경을 지원하면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

지역 특화품목인 복분자와 수박, 황토멜론과 종전장어의 생산과 가공, 유통·마케팅에 힘쓰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전국적인 명성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친환경생산물산지조성, 친환경비지윈, 친환경직불제지원과 각 마을마다 농로포장과 비닐하우스, 저장고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한 6차산업화지구 조성에도 힘썼다.

산과 들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고창군은 어업발전에도 크게 힘써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속에 고창갯벌식물원조성사업과 생태계복원사업 등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갯벌생태계를 지키면서 어업자원방류 및 바다목장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도모해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름답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

고창군은 세계유산의 도시답게 풍부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결합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유적지와 고창고인돌박물관과 함께 선사마을을 조성해 세계문화유산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근의 운곡탐사르습지와 관광코스를 연계하고 가을철이면 국화축제도 개최해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가 한층 더 발전시켰다.

또한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풍물소리테마파크를 조성했으며 판소리전수관과 국악교실 활성화 등 군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고창군민의 정신적 토양인 동화농민력량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원의 주말상시공연 활성화 등으로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고창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가장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한국인의 본향 완성

고창군은 내년에도 100년 후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의 질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찾아오기 쉬운 고창군 만들기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추진하고 있는 국도 23호선(흥덕-부안)건설과 고창-내장산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국지도15호선(백암IC-고창석정온천) 및 국지도 49호선(장성 북일면-고창석정온천) 확포장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고창갯벌은 오는 201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 구축, 보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양질의 일자리가 가득한 행복한 일터이자 삶터 조성, 농식품산업육성과 향토식품 명품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비롯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어업환경기반 마련 등 골고루 행복한 고창군을 만드는 한편, 각종 하천과 재난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고창군을 더욱 힘차게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박우정 군수의 한마디

“군민에게 필요한 군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

고창군은 올해도 6만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있는 힘을 다해 협력해 준 고창군민과 지역구 및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고창군 출신 공직자 모임인 공우회 등 '고창'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합심해 역량을 발휘한 덕분에 국가예산 최다액 확보와 군 역점사업들을 목표한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든든한 여건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고창군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행복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고창군을 위해 2018년에도 오직 고창군 발전만을 바라보며 힘껏 뛰겠습니다.



아산면 고창의강 조성사업



자연미당 조성사업 현장 간담회



재난재해 안전지역 만들기



활력넘치는 어촌마을 조성 현장 방문



지역 선도농가 현장 소통



고창 육아종합복지센터 개관



박우정 군수 노인복지관 방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